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각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폐제찬양과 기도회가 열립

니다.

다음 주일은 설날 연휴 관계로 주일 예배를 1,2부 연합으로 11시에 드립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세요.

2016년도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의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환경부, 문화부, 평화부, 예배부도 새로운 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총여선교회에서 떡국떡(10,000원)을 판매합니다. 참기름(8,000원)과 들기름(7,000원)도 판매합니다.

윤주원 권사가 지난 28일 별세하여 장례 중에 있습니다. 유가족 위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길 기원합니다.

1부	출 34:29-35 / 시 99	2부	미정
예배	고후 3:12-4:2 / 눅 9:28-36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윤형석 이선화 차혜심 홍성식 박석희
다음 주 식당봉사 : 없음
오늘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40세 이하)
다음주설거지봉사 : 없음
커피 판매 봉사 : 4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오
묘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주현 후 제4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랜 세월 주님의 몸 되신 청과교회를 찬양으로 섬겨오던 윤주원 권사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갑작스레 가장을 잃어버리고 절규하는 유가족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찢긴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청과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먼 길을 떠나 말씀을 전하게 된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을 통해 생명과 평화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호10:12 인도자
- ♣ 교 독 문 78. 요한복음 14장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대표기도 한완식 장로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함께
- ♣ 성경봉독 I. 렘1:4-10 전13:1-13 눅4:21-30 임창국 선생
 II. 사49:8-16a 박기영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선한 목자 되신 주 찬양대
- 말 씬 I. 우리 잘 모른다 김재흥 목사
 II. 위로와 긍휼 이범석 목사
-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근종	정옥영	김나름	김문주	김성순	김성우	박유경	김세진	김정린	김주영
김중수	이순정	김태정	김필순	김현동	오유경	김혜영	문홍일	박병구	김인순
신진식	변혜정	오슬기	유지은	윤성중	김윤정	이경남	이범석	류정욱	이용석
이재삼	전정현	이재은	이주영	오재영	이치림	강상연	임주빈	최현욱	장미경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조지연	차혜심	최미자	최재욱	이수정
하현철	최성애	허신열							

감사헌금

강금분	김해선	김향자	김현린	박진희	김희우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신진식	변혜정	우순덕	이명희	한봉섭	이은혜	이치림	강상연	진혜정	최원일
조유진	무명11								

생일감사헌금

이미혜

녹색꿈헌금

김하선 오유경 윤미경 윤수진 임선양 신현숙 임설희 허명선 무명5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쉽	청 파1속	김재흥	쉽
안 디 옥	최경미		청 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청 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청 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청 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청 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권희		청 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청 파8속	이범석	
나 사 렛	김경혜		청 파9속	김인걸	
			청 파10속	장영숙	

밤길

조금만 참아라
 다 와간다 좋아진다
 이제 따뜻한 국물 같은 거
 먹을 수 있다

멀리서 가까이로
 개 짖는 소리 들리고
 언뜻 사람들 두런거리는 소리도
 지척에까지 가까워졌다는
 이내 다시
 아득히 멀어졌다

어머니
 누비포대기 속에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마흔아홉 번째 겨울이 간다

- 이덕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으며 고아 같이 버려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둡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위로와 긍휼에 힘입어 사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은 위로와 긍휼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 집회 / 설교: 이범석 목사 저녁 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다음 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예배위원	신진식 전도사	김재흥 목사	김종락 집사

1월	영접위원	한완식 임주빈 김정주 최현옥 고숙이 김정미 최은미
	헌금위원	박홍재 정영선

3R

... 존 퍼킨스 John Perkins는 미시시피 주 시골 들판에서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을 사건을 경험했다. 주류 밀매자이자 소작인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퍼킨스는 남부의 흑인차별 정책 아래 1달러를 벌기 위해 발버둥 치던 열두 살짜리 흑인 소년이었다. 어느 날 그는 백인들의 건초를 끄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온종일 일을 하고도 그에게 주어진 돈은 겨우 15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훗날 그는 말했다. “그날 나는 경제체제와 그것이 돌아가는 방식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퍼킨스가 처음 한 생각은 가능한 한 빨리 남부를 벗어나야겠다는 것이었다. 1947년, 그는 어렵사리 캘리포니아로 가서 한 시간에 98센트를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얻었다. 10년간 고생한 끝에 퍼킨스는 결혼했고 집을 한 채 샀으며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음에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그와 결부된 남부의 경제체제를 떠났다. 그는 기록했다. “확신하건대 교회, 실제로는 흑인 교회(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교회였으므로)란 그저 또 다른 한 종류의 착취였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 학교에 다녀온 아들이 들려 준 예수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퍼킨스는 오순절 교회로 찾아가 그들이 자기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기로 했다. 그 교회에서 그는 예수를 만났다. 예수에게 미시시피로 돌아가라는 부름을 받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미시시피 시민권 운동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시기, 퍼킨스는 복음적인 신앙과 풀뿌리 정치 조직, 경제 발전을 결합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회상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시민권 운동가였다고 생각했고, 아니면 광신도, 아니면 그냥 ‘미친 검둥이들’이라고 생각했다.” 시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사그라든 후에도 퍼킨스는 활동을 이어갔다. 1970년

에는 백인 경찰관에게 두들겨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퍼킨스는 증오를 극복하는 사랑의 힘을 예수에게 배웠다. 이에 더해 그는 자신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에 담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공동체 영성을 세워야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대야 했다. ...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갈수록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는 단지 편안히 공동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요일마다 모이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합친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퍼킨스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3R”을 설교하기 시작했다. 첫째, 우리는 버림받은 이웃에게로 다시금 자리를 옮겨야 Relocate 한다. 다음으로, 경제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자원을 다시 분배해야 Redistribution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함께할 때,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어 누구도 빈손으로 가는 이가 없을 때 진정 우리는 다시 화해할 수 있다 Reconciliation. 전국 곳곳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퍼킨스의 제안을 듣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백에 이르는 단체들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고, 오늘날 이 단체들이 모여 ‘그리스도교 공동체 발전 연대’ Christian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 CCDA가 되었다. 그들은 도시 안에서도 부동산 중개인들이 꺼리는 지역에서 이웃들과 날마다 함께 살며 일한다. 그들은 퍼킨스가 “조용한 혁명”이라 부른 혁명을 이루는 일원이다.

...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혁명의 씨앗을 도심에 사는 버려진 이웃과 잊혀진 우리의 농지에 뿌려 놓으셨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발전 연대는 시끄럽지도 않고 별다른 소문도 없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실천을 이어갔다. 그 실천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그네를 맞이하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으며 악을 선으로 갚았다. ...